



예상 출제 유형

이 단원에서는 비유의 개념, 표현 방법, 효과를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. 「우리 둘이」는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친구의 위로를 통해 회복되는 화자의 정서를 비유적 표현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, 고래, 분수, 돌고래, 지느러미 등 구체적인 대상을 활용해 내면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드러냅니다. 따라서 이 시에서는 서정 갈래의 특징, 비유의 방식과 효과, 심상의 역할, 화자의 감정 변화, 인물 간의 관계, 의성어·의태어의 표현 효과 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.

【1~5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고래고래

⑦노래를 부르면

입에서 고래가 튀어나올 것 같아

바닷속에서 숨을 참았던 고래가 평!

⑤분수처럼 숨소리가 하늘 높이 솟구치는 기분
등대를 세우는 기분

참았던 걸 다 쓸어 내 버려!

[A]

정민이가 굽은 내 등을 지느러미로 쓰다듬어
주더라

노래보다 그게 훨씬 좋았어

④정민이랑 나랑

둘이서 세상 끝까지 헤엄치는 돌고래처럼

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리 둘이

노래가 되었어

- 김준현, 「우리 둘이」

1.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이 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다.
- ② 화자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경이로움을 중심으로 감정을 표현한다.
- ③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통해 관계 회복의 과정을 보여 준다.
- ④ 화자는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다.
- ⑤ 이 시는 생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표현한다.

2. '나'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.
- ② 친구의 위로를 통해 큰 힘을 얻고 있다.
- ③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.
- ④ 노래를 통해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내고 있다.
- ⑤ 친구와 함께하며 삶의 희망을 느끼고 있다.

3. ①~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두 대상을 연결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비유하여 감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.
- ②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을 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.
- ③ 반대되는 성격의 대상을 대비시켜 분위기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.
- ④ 비유법 중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형식으로, 2개의 사물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.
- ⑤ 소리를 흉내 낸 말을 사용하여 감정의 흐름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.

4. [A]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, '나'의 원래 감정 상태로 적절한 것은?

- ① 억눌린 감정을 털어내고 훌가분한 상태였다.
- ② 친구의 위로로 인해 감정이 처음 생긴 상태였다.
- ③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으며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.
- ④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.
- ⑤ 친구와 갈등으로 인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었다.

5. 이 시에서 '고래'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?

- ① 힘든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'나'의 바람을 담은 존재이다.
- ②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상징하는 구체적 대상이다.
- ③ 현실의 고통을 피하고자 상상해 낸 허구적 존재이다.
- ④ 자연의 웅장함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한 상징적 장치이다.
- ⑤ '정민이'가 화자에게 보여 준 실제 행동을 형상화한 것이다.

【6~10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밤하늘은 / 별들의 운동장

⑦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니다.

운동회를 벌였나 / 아득히 들리는 함성,
먼 곳에서 아슴푸레 빈 우렛소리 들리더니

⑨빗나간 야구공 하나

쨍그랑 / 유리창을 깨고

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.

– 오세영, 「유성」

(나) 우영우: 봄날의 햇살 같아.

최수연: 어?

우영우: 법학 전문 대학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.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 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.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 주고,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

려 주겠다고 해.

최수연:

우영우: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 이야. ⑩‘봄날의 햇살’ 최수연이야.

– 문지원, 「이상한 변호사 우영우」

6. (가)를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상을 했다고 가정할 때,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별이 많이 떠 있는 밤하늘을 운동장에 비유하여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야겠어.
- ② 평범한 일상적 표현 위주로 구성하여 쉽게 읽히게 해야겠어.
- ③ 별들의 움직임을 의성어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해야겠어.
- ④ 유리창이 깨지는 장면을 청각적으로 표현해서 현장감을 높여야겠어.
- ⑤ 시 전체에 시각적·청각적 심상을 적절히 배치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해야겠어.

7. (가)와 (나)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말하는 이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어 감정 이입을 유도하고 있다.
- ②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실감을 극대화하고 있다.
- ③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사물에 대입하여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- ④ 비슷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빗대어 감정이나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- ⑤ 배경 묘사를 중심으로 하여 정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

8. ⑦과 같은 표현 기법이 드러난 것은?

- ① 저녁노을이 하늘 끝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지켜본다.
- ② 나뭇잎이 바람을 피해 살랑살랑 춤을 춘다.
- ③ 구름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냄새를 풍겼다.
- ④ 분노는 마음속 활활 타오르는 불꽃.
- ⑤ 시계는 쉼 없이 걷는 군인처럼 시간을 간다.

9. 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별똥별의 실제 궤적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구체적 표현이다.
- ② 별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직유법을 활용한 표현이다.
- ③ 별똥별이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야구공에 빗댄 비유적 표현이다.
- ④ 실제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운동 경기를 주제로 서술한 사실적 표현이다.
- ⑤ 별이 가진 신비로운 상징성을 그대로 전달한 상징적 표현이다.

10. ⑥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?

- ① 직유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.
- ② 상징을 활용하여 상대의 말투와 표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.
- ③ 관용 표현을 통해 일상적인 상황을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.
- ④ 반복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.
- ⑤ 은유법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성격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다.

【11~16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고래고래
노래를 부르면
입에서 고래가 튀어나올 것 같아

바닷속에서 숨을 참았던 고래가 평!
분수처럼 숨소리가 하늘 높이 솟구치는 기분
등대를 세우는 기분

참았던 걸 다 쏟아 내 버려!

정민이가 굽은 내 등을 지느러미로 쓰다듬어 주더
라

노래보다 그게 훨씬 좋았어

⑦정민이랑 나랑

둘이서 세상 끝까지 혜엄치는 돌고래처럼
우우 우우 우우 우우 우리 둘이
노래가 되었어

– 김준현, 「우리 둘이」

(나) 밤하늘은 / 별들의 운동장
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.
운동회를 벌였나
아득히 들리는 함성,
먼 곳에서 아슴푸레 빈 우렛소리 들리더니
빛나간 야구공 하나
쨍그랑 / 유리창을 깨고
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.

– 오세영, 「유성」

(다) 우영우: 봄날의 햇살 같아.

최수연: 어?

우영우: 법학 전문 대학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.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 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.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 주고,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 주겠다고 해.

최수연:

우영우: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 이야. ⑤‘봄날의 햇살’ 최수연이야.

– 문지원, 「이상한 변호사 우영우」

11. (가)~(다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: ‘고래고래’, ‘평’ 등의 표현을 통해 감정을 음성상징어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.
- ② (가): ‘돌고래처럼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‘정민이와 나’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- ③ (나): 별들의 모습을 운동장과 야구공에 비유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- ④ (나):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등을 통해 시각적 심상 중심으로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.
- ⑤ (다): 우영우는 최수연을 ‘봄날의 햇살’에 비유하여 성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.

정답 및 해설

1. 정답 ④

이 시는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친구의 위로를 받고, 그것을 노래로 풀어내며 감정을 표현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- ① 이 시는 사회 구조나 모순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② 자연 그 자체의 경이로움이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갈등보다는 친구와의 따뜻한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⑤ 동물(고래)이 등장하긴 하나,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다루는 시는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.

2. 정답 ③

시의 화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친구 정민이의 위로에 기대며 감정을 나누고 있고, 함께 살아가려는 태도를 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
- ① 시의 1연과 2연에서 답답함을 토해내듯 노래하는 모습을 통해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② 3~4연에 나타난 친구의 다정한 위로가 화자에게 큰 힘이 되었음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.
- ④ 노래와 의성어 표현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발산하는 모습을 보여 주므로 적절하다.
- ⑤ 마지막 연에서 친구와 함께 노래가 되었다고 표현하며, 함께하는 존재로서 희망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3. 정답 ④

㉠~㉡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은 직유법이다. 직유법은 비유법 중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형식으로, 2개의 사물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. 은유법과 달리 비유가 겉으로 드러나므로 묘사가 정확하고, 논리적·설명적인 것이 특징이다.

- ① 연결어 없이 비유하는 방식은 은유법에 해당하

므로 ㉠~㉡의 공통적인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.

- ② 과장된 표현은 과장법으로 ㉠~㉡의 공통적인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대비시키는 방식은 대조법으로 ㉠~㉡의 공통적인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.
- ⑤ 소리를 흉내 낸 말은 의성어에 해당하며, ㉠~㉡의 공통적인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.

4. 정답 ③

‘참았던 걸’, ‘굽은 내 등’ 등의 표현을 통해 답답한 감정과 위축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.

- ① ‘참았던 걸 다 쓸아내 버려!’는 감정을 분출하는 장면이므로, 원래는 억눌린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② 화자는 이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으며, 친구의 위로로 인해 새로운 감정이 생긴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④ ‘굽은 내 등’, ‘참았던 것’ 등에서 평온하지 않았던 상태가 드러나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⑤ 이 시에는 갈등 상황이나 분노 표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5. 정답 ①

고래는 숨을 참다가 물 위로 솟구치는 모습으로 등장하며,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고 싶은 ‘나’의 내면을 상징하는 존재로 쓰였다. 또한 고래가 친구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은 화자가 바라는 관계이자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을 반영하므로 적절하다.

- ② 여행을 의미하거나 떠나는 장면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고래는 단순한 상상 속 허구적 존재가 아니라 화자의 감정을 담아낸 상징물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④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웅장함보다는 화자의 감정을 상징하는 데 초점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⑤ 정민이의 위로 행동은 지느러미에 빗대어 표현되었지만, 고래 전체가 그 행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.

6. 정답 ②

- (가) 시의 ‘바자닌다.', '아슴푸레', '우렛소리' 등 평범한 일상적 표현 위주로 구성한 것이 아니므로 적

절하지 않다.

- ① 밤하늘을 운동장에 비유한 표현은 실제 시 속 내용과 일치하므로 적절하다.
- ③ ‘쨍그랑’ 같은 의성어 사용을 통해 생동감을 준 표현이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④ 유리창 깨지는 장면에서 청각적 심상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므로 적절하다.
- ⑤ ‘함성’, ‘쨍그랑’ 등 청각적 심상과 ‘밤하늘’, ‘별’, ‘유리창’ 등 시각적 심상이 조화롭게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.

7. 정답 ④

(가)에서 별을 운동장과 야구공에, (나)에서 사람을 ‘봄날의 햇살’에 빗대는 등 비슷한 속성의 대상을 활용하여 감정이나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적절하다.

- ① (가)와 (나)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비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② (가)와 (나) 모두 ‘운동장’, ‘봄날의 햇살’ 등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, 현실감을 극대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(가)와 (나) 모두 풍자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.
- ⑤ (가)와 (나) 모두 배경 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.

8. 정답 ②

①은 의인법이 사용되었다. 숨을 추는 것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다. 따라서 ②에서 나뭇잎을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다.

- ① 노을이 숨을 쉰다는 표현은 의인법이 아니라 활용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, ⑤ ‘숨사탕처럼’, ‘군인처럼’에서 모두 연결어가 쓰인 직유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④ ‘A는 B’의 형식으로 분노를 불꽃에 대응시킨 은유법이라 적절하지 않다.

9. 정답 ③

별똥별이 갑자기 떨어지는 모습을 ‘야구공’이라는 친숙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한 비유적 표현이므로 적절하다.

① ②은 시적 상상력을 통해 형상화한 표현으로, 과학적 설명이 목적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.

- ② 직유는 ‘~처럼’, ‘~같이’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나, 이 표현은 직접 연결어 없이 사용된 은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④ 실제 경기 상황을 설명한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⑤ 신비로운 상징성보다는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10. 정답 ⑤

은유를 통해 최수연의 밝고 따뜻한 성격을 ‘봄날의 햇살’이라는 이미지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표현했으므로 적절하다.

- ① 직유법은 ‘~같이’ 등의 연결어가 있을 때 해당하며, ②은 ‘A는 B’로 표현한 은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② 상징은 대상을 상징물로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지만, ③은 비유적 표현인 은유로 성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관용 표현은 관습적으로 굳어진 구절이지만, ④은 화자의 창의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④ 반복은 특정 어구가 반복되는 방식으로, ⑤에는 반복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11. 정답 ④

유리창이 깨지는 장면은 ‘쨍그랑’, ‘또르르’ 같은 청각적 심상 중심 표현이므로, 시각적 심상 중심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.

- ① (가)에서 ‘고래고래’, ‘펑’, ‘또르르’ 등의 음성상징어는 시의 분위기와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므로 적절하다.
- ② ‘정민이랑 나랑 둘이서 세상 끝까지 헤엄치는 돌고래처럼’은 직유법이며, 서로 의지하며 함께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므로 적절하다.
- ③ (나)는 밤하늘의 별을 ‘운동장’, ‘야구공’ 등으로 비유하며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⑤ (다)에서 ‘봄날의 햇살’은 최수연의 따뜻한 성격을 은유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.

12. 정답 ⑤